

농촌 관광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다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

임실군, 농촌크리에이티브 지원 공모 선정... 차별화된 농촌 특화관광상품 운영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농촌 관광 시대를 여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크리에이티브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2,5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방문객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촌크리에이티브 사업은 기존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관광경영체, 여행전문

가(여행사), 청년 등이 협업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농촌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관광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 관광 민간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된 공동협의체(운영조직) '임실오실'은 대표법인으로 (사)임실지역활력네트워크 사업단이 중간지원조직을 맡고,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네트워크가 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관광상품은 당일형 상품 4가지와 체류형 상품 1가지로 나뉘어, 방문객들은 당일 여행 또는 1박2일 체류형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당일형 상품은 '치즈맛보쌈', '섬진강기차', '육정호보쌈', '농악즐기쌈' 등 4가지, 체류형 상품은 '촌캉스하룻'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2025년 임실방문의 해'를 맞이해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생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농촌크리에이티브 사업을 통해 농촌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아동까지 가입 가능

남원시는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자선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와 정부가 매월 10만원 내에서 아동 저축금액의 2배(아동 1:정부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최대 15만원 적립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 대상은 17세 이하의 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 한정됐다면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비,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의 지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도달 시에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선형성에 매우 유용하다.

신규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포털(www.bokjiro.com)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남원시 여성가족과(063-620-694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후 적립이 어려운 환경의 아동도 사회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자 발굴 및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소방서, 동절기 화재 예방 대책 강화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겨울철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동절기 화재 예방 대책 강화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낮은 기온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다른 어느때보다 높아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어 화재 취약 시설 등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 강화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관계자 교육 △농촌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점검 △소방관서장 현장방문행정 △화재예방 기동순찰 등이다.

김상곤 임실소방서장은 "동절기 화재 예방 대책 강화를 통해 모든 군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자동차세 연납 세액 4.6% 할인

순창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순창군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650-1346)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 신청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ATM,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납 신청은 3월(3.8% 할인), 6월(2.9% 할인), 9월(1.3% 할인)에도 가능하다. 1월 신청 시 가장 높은 4.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순창군, '농가 일손 걱정은 줄이고 소득은 높이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호응'... 농가 부담 확 낮춰

순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농가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총 15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분소와 서부권, 북흥·쌍치 권역 등 3개소에서 49기종 688대의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 운영하며, 연간 6,271건의 높은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업용 굴착기 등 27기종 75대의 임대장비를 새로 구입하며 정비를 대폭 확충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4회에 걸쳐 35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100개 마을 700명의

농업인을 찾아가는 순회수리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영농철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운영한 농기계작업단은 1,448건, 118헥타르의 작업을 수행하며 큰 성과를 거뒀으며, 새롭게 시작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역시 128건, 52헥타르의 작업실적을 기록하며 농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706농가 120톤 규모의 벼 온탕소독기 운영, 추석 맞이 510대의 예초기 무상수리, 562농가 285톤의 콩 선별작업 지원 등을 통해 농가들의 경영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다. 이와 함께, 농업용 드론 30명, 소형 중장비 74명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농업 현대화에도 앞장섰다.

농기계를 임대한 한 농민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작업단을 통한 일손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를 반영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으로 농가들의 일손 걱정을 덜고 소득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는 7월부터 노암동을 시작으로 23개 읍면동 이동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남원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남원시는 7월부터 노암동을 시작으로 23개 읍면동 이동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완진 관장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동학대 개념 및 학대유형 소

개 △올바른 양육방법 △아동학대 신고 및 보호 절차 등 동영상을 통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됐다.

김완진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이동장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적극행정으로 주택·건축 행정 분야 9관왕

임실군이 지난 한 해 동안, 1개 팀에서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 적극행정 분야에서 개인·기관 표창 9관왕을 차지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이뤄냈다.

군에 따르면 종합인원과 주택정책팀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2개의 기관 표창과 담당 공무원 6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에서 임실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다.

개인 표창으로는 주택·건축업무 유공 여주희 주무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유공 박문영 주무관, 공공디자인 진흥 유공 정용 주무관, 도시재생 유공 이준영 주무관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와 더불어 김경록 주무관이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추진 유공을 인정받아 전북개발공사장의 감사장을 받았다.

정일범 팀장은 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행정안전부에서 검증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다. 정 팀장은 팀원들에게 항상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경제교통과 근무 시 팀원이



임실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 표창 우수상을 받고, 부 공적자인 이종선 주무관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임실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김경록 주무관이 임실군수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남원에 나타난 익명의 기부천사... 성금 500만원 기부

남원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 6일,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남원시가 고향인 다른 지역 거주자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익명으로 기부를 요청했으며, 남원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이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남원시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존중해, 기부받은 성금을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